

현대기아차 막판질주 ... 2년 연속 800만대 판매

경기침체 불구 신차 등 앞세워 11월까지 719만대 팔아

내년 판매목표 820만대 내외 될 듯 ... 신흥시장 변수로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신차 등을 앞세워 2년 연속 800만대 이상 판매를 달성할 전망이다. 올해 목표치인 820만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내외의 약세 속에 선방한 실적이다. 내년 판매 목표는 신흥국 불안을 고려해 올해와 비슷한 820만대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올해 11월까지 444만9000여대와 274만3000여대 등 총 719만2000여대를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724만7000대 대비 0.8% 감소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연간 판매 대수인 800만5000여대 보다 적게 팔 것으로 불 수도 있다.

그러나 내년 12월은 자동차 산업수요가 폭증하는 달인 점을 고려하면 현대기아차의 올해 800만대 판매 달성은 무난하다는 게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이다.

지난해 12월 현대기아차는 75만8000대를 팔아 2014년 1~11월 월평균 판매 대수 65만9000여대비 1.2배 가량으로 판매 대수가 늘어 나며 월간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12월의 경우 내수 판매에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가격 할인, 글로벌 판매에는 적극적인 판촉 활동이 더해져 현대기아차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800만대 판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713만대를 팔아 처음으로 700만대 고지를 넘어선 뒤 2013년 755만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800만대에 턱걸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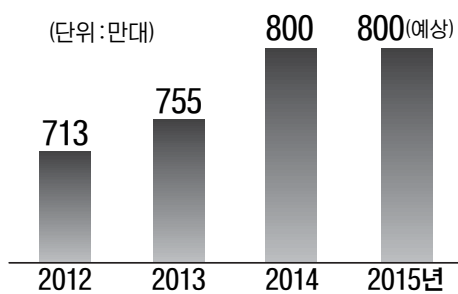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12월이 원래 판매가 많이 늘어나는 달"이라면서 "최근 현대기아차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2월 현대기아차의 판매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인 중국 시장이다.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가 올해 11월까지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낸 것은 중국 로컬 업체들의 저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공세에 따른 중국 내 판매 감소가 가장 컸다.

그러나 지난 11월 현대차와 기아차는 중국에서 총 18만159대를 판매해 올해 10월까지 중국 월평균 판매대수 12만8000대 대비 1.4배나 더 팔았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현대기아차는 12월에도 중국 판매를 더욱 확대할 기세다. 또한 지난 11월부터 해외시장에 현대차 신형 A반패와 기아차 신형 스포티지의 수출이 시작될

■ 현대 기아차 연도별 판매 대수 (단위:만대)



에 따라 12월 이 두 차종이 본격 수출되면 전체 판매물량도 한층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내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돼 국내 자동차 시장 역시 최대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12월 판매 물량은 기존보다 5~6만대 이상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돼 연간 판매대수는 800만대를 훌쩍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 800만대 달성에 이어 내년도 현대기아차 사업계획이 어느 수준에서 정해질지도 관심거리다.

업계에서는 현대기아차의 내년도 사업목표는 올해 당초 사업 목표였던 820만대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내년 신차 출시 및 공장 준공, 주력 판매 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아차 멕시코 공장과 현대차 중국 허베이 공장이 준공됨에 따라 양적 팽창 요인이 있다"면서 "그러나 주력시장인 신흥시장 집체가 지속하고 엔저를 바탕으로 일본 업체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태"고 말했다. /연합뉴스



가격 내리고 선호 사양 장착 현대차 '2016 아슬란' 출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사양을 기본으로 장착하면서 가격을 내린 '2016 아슬란'이 7일부터 본격 시판됐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아슬란을 출시한 이후 1년 동안 축적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사양을 재구성하고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2016 아슬란'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실례로, '2016 아슬란'의 엔트리 트림인 G300(3.0) 모델의 경우 고객 선호 사양인 운전석·동승석 통풍시트와 4.6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 등을 기본 적용한 반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헤드업 디스플레이(HUD)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 등은 선택사양으로 변경했다.

G300(3.0) 모델의 가격은 기존 모델에 비해 103만원 인하된 3천721만원으로, G330(3.3) 모델은 245만원 내린 3천868만원으로 책정됐다. 현대차는 또 중고차 제휴업체 '유카'와 함께 1년 75%, 2년 68%, 3년 62%로 아슬란 중고차 가격을 보장해주는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슬란 출시 후 1년 동안 축적된 1만명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자 애썼다"며 "최고급 세단으로서 품격과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비 앱 '만물상자' 된다

T맵·김기사 이어 네이버도 길안내

차량관리·동호회 모임지원 등 가능

네이버가 1000만명이 사용하는 인기 앱 네이버지도에 내비게이션(길안내·이하 내비) 기능을 넣기로 하면서 내비 시장이 '제2의 격변'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내비는 1990년대 말 처음 나올 때는 지도를 액정화면에 띄우는 하드웨어였지만 이후 2000년대 말 스마트폰 혁명을 맞으면서 어떤 단말기나 깔아 쓰는 길 안내 소프트웨어(내비 앱)로 존재 형태가 바뀌었다. 이후 검색과 콘텐츠를 갖춘 포털 네이버가 내비 시장에 진입하며 내비 앱이 스마트폰·위치 검색·소셜네트워크(SNS) 등과 융합해 새 수요를 만드는 '서비스'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단순 길 안내만 하던 내비가 차량 관리, 여행지 검색 및 탐색, 커뮤니티(동호회) 모임 지원, 운전자 안전 관리 등을 제공하는 '만물상자'로 변신해 고객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의 시장 진입은 비교적 단순하던 내비 앱의 수익 구조에도 변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내비 앱은 SK텔레콤 T맵처럼 월 수천원 사용료(자사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시 무료)를 부과하거나 '김기사' 앱처럼 설치하는 공짜지만 이후 디스플레이 광고를 노출하는 경우가 수익 구조의 전부였다. 그러나 내비 앱이 서비스를 확충해 사용자층이 넓어지면 '위치 맞춤형 광고' '네이티브 광고' (지도 콘텐츠처럼 보이는 광고) '단계별 요금제' 등 새 수익 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예측한다. /연합뉴스



신형 K5 하이브리드 지난 3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미디어발표회 겸 시승회에서 모델들이 스포티 하이브리드의 새로운 기아차 제품

자동차판 '코리아 그랜드 세일' 시작

현대차, 최대 300만원 할인·36개월 무이자

기아차, 모닝, K3, K5, K7 등 1.5% 금리

쌍용차, 할부구매 차량 취득세·등록세 지원

자동차판 '코리아 그랜드세일'이 시작됐다. 국내 완성차 및 수입차 업계가 개별소비세 인하와 연말 대목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상 최고 수준의 현금 할인을 제공하는 등 12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가격 세일에 나섰다. 이번달에 차량을 구입할 경우 평당보다 최대 20~30%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자동차를 사려는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기회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이달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현금 할인 또는 이자부담이 제로가 되는 36개월 무이자 할부(선수율 20%)를 제공한다.

대부분 차종이 36개월 무이자 가능하며 현금할인을 선택하면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300만원,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아슬란 100만원, 더 뉴 i40, 더 뉴 i30, 더 뉴 벨로스터 70만원, 그랜저 하이브리드 60만원, 엑센트 2015, 쏘나타 2016 40만원을 각각 깎아준다.

기아자동차는 이번달 모닝, K3, K5, K7, K7 하이브리드 등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1.5% (36개월) 금리 등을 적용한다.

차종별로 기본 할인 금액을 보면 K7 하이브리드 200만원 또는 최저 1.5% 초저금리 할부+100만원, K7와 K3(15MY) 150만원 또는 최저 1.5% 초저금리 할부+100만원, K5 100만원 또는 최저 1.5% 초저금리 할부+ 50만원, K5 하이브리드 100만원, 모닝 80만원 또는 최저 1.5% 초저금리 할부+ 50만원 등이다.

쌍용차는 이번달 일시불이나 정상할부, 가족사랑할부(선수율 0%, 5.7% 60개월 할부)로 코란도C, 렉스턴W를 구매하면 각각 취득등록세 150만원, 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란도 투리스

모 구매자에게는 190만원 상당의 전자식 4WD 시스템 패키지를, 코란도 스포츠 구매자에게는 10년간 자동차세를 지원한다. 체어맨V V8 5000(스페셜 에디션 제외) 구매 고객에게는 1천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과 700만원 상당의 서비스 쿠폰, VVIP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한국 GM은 12월 한달간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포함해 차종별로 알페온 342만원, 말리부 276만원, 크루즈 210만원, 올란도 151만원, 트랙스 115만원, 아베오 106만원, 다마스 및 라보 40만원 등의 할인을 해 준다. 전 차종을 대상으로 18일까지 출고를 완료하면 20만원을 추가 할인해준다.

르노삼성성은 SM3, SM5, SM7, QM5, QM3을 현금으로 사면 취득등록세 1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2011년 이전 등록(2010년 12월까지)된 노후차량을 르노삼성 신차로 교환하면 50만원을 추가 제공한다. /연합뉴스

펜션·박물관 / 미술관·식당·찻집등 최고 장소

-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25번지
-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 대지 2441평, 건물 882평, 임야6726평
- ▶ 과거, 펜션 박물관 식당 찻집 운영(구/송학랜드)
-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가능 / 도 관광 진흥자금 유치 가능
- ▶ 현재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2.1%, 월219만원)
- ▶ 1년후 약 18억 정도 재 대출 가능
- ▶ 법인체 인수시 이전비 1억 정도 절약
- ▶ 시세/감정가 30억 정도
- ▶ 매매 18억 8천만원(12/31일까지 완불 조건)

공동중개환영 H.010-3605-5000

펜션, 리모델링 후(약 2억정도) 연 2억이상 순수익 가능!

담양 ← → 금과